*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인간과학의 고고학』, 이규현 옮김, 민음사, 2012.

서문

1부
1장 시녀들
2장 세계의 산문
1 네 가지 유사성 / 2 표징 / 3 세계의 한계 / 4 사물의 문자 / 5 언어의 존재
3장 재현하기
1 돈키호테 / 2 질서 / 3 기호의 재현 / 4 이중화된 재현 / 5 닮음의 상상력
6 '마테시스'와 '탁시노미아'
4장 말하기
1 비평과 주석 / 2 일반 문법 / 3 동사의 이론 / 4 분절 / 5 지칭 / 6 파생
7 언어의 사변형
5장 분류하기
1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 / 2 자연사 / 3 구조 / 4 특징 / 5 연속과 파국
6 기형과 화석 / 7 자연의 담론
6장 교환하기
1 부의 분석 / 2 화폐와 물가 / 3 중상주의 / 4 담보와 가격 / 5 가치의 형성
6 유용성 / 7 일람표 / 8 욕망과 재현

2부
7장 재현의 한계
1 역사의 시대 / 2 노동의 척도 / 3 생물의 유기적 구조 / 4 말의 굴절
5 관념학과 비판론 / 6 객관적 종합
8장 노동, 생명, 언어
1 새로운 경험성들 / 2 리카도 / 3 퀴비에 / 4 보프 / 5 대상이 된 언어
9장 인간과 인간의 분신들
1 언어의 귀환 / 2 왕의 자리 / 3 유한성의 분석론 / 4 경험적인 것과 선험적인 것
5 코기토와 사유되지 않은 것 / 6 기원의 후퇴와 회귀 / 7 담론과 인간의 존재
8 인간학의 잠
10장 인문과학
1 지식의 3면체 / 2 인문과학의 형식 / 3 세 가지 모델 / 4 역사
5 정신분석학, 민속학 6 결론을 대신하여

해설
찾아보기

* 르네상스 이후 현재(1966년?)까지의 서구 앎의 인식론적 단절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	현대?
16세기 ~17세기중반	17세기 중반 ~18세기말/19세기	18세기말/19세기 초부터~	니체? 프로이트?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푸코?
유사성 類似性 ressemblance resemblance	표상 表象 (=재현 再現) représentation representation	역사 歷史 (=인간人間 =경험적・선험적 이중체) histoire/history	언어?
-	자연/ 自然史(=博物學) natural history	퀴비에/ 생명 생물학 biology	다윈/프로이트? 심리학・정신의학? psychology
-	富/ 부의 분석 analysis of the weath	리카르도/ 노동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마르크스? 사회학? sociology
-	낱말/ 일반문법 (포르 루아얄)	보프/ 언어 비교문법	소쉬르/ 레비스트로스? 문학과 신화분석?

* 양운덕, 「칸트와 푸코 - 푸코의 칸트 읽기」, 한국칸트학회 엮음, 『포스트모던 칸트』, 문학과지성사, 2006.

칸트	푸코		
경험적 질료	언어 현상	노동 산물	생명체
선험적 형식	언어 구조	노동	생명 조직
유한성	유한성		

심리학	사회학	문학과 신화연구
정신분석	민족학	
언어		

*** 『말과 사물』 판본**

① *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Gallimard, 1966.

② *The Order of Things: An Archaeology of the Human Sciences*, unidentified collective translation, Tavistock/Pantheon, 1970 and Social Science Paperback, 1974. ①의 영역. 번역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영역본에는 푸코 자신의 「영역판 서문」(Foreword to the English edition, ix-xiv)이 실려 있다.

③ 미셸 푸코, 『말과 사물: 人文科學의 考古學』, 이광래 옮김, 민음사, 1986. ①의 국역.

④ 미셸 푸코, 『말과 사물』, 이규현 옮김, 현대사상의 모험 27, 민음사, 2012. ①의 국역.

*** 말과 사물**

"내부는 또한 분명 외부이다 L'intérieur est tout aussi bien l'extérieur." - HF, 537

1966년 푸코는 <<말과 사물>>을 발간한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푸코는 근대와 계몽에 대한 자신만의 명료하고도 야심찬 정의와 시대구분을 시도한다. 사실상 <<말과 사물>>은 이 시기에 대한 푸코만의 독특한 철학적·역사적 관념을 발전시킨 저작이라 볼 수 있다. 푸코는 고고학적 정신에 따라 우선 자신의 분석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명확히 위치시킨다. 푸코는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 대한 보르헤스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것으로 <<말과 사물>>을 시작한다[1] :

"이 책은 보르헤스의 한 텍스트에 그 출생지를 둔다. 그곳은, 이 텍스트를 읽으며, **우리를 위해** 존재들의 방만함을 진정시켜주던 잘 정돈된 모든 표면과 모든 평면을 무너뜨리고, 동일자와 타자(*du Même et de l'Autre*)라는 천년에 걸친 **우리의** 실천을 오랫동안 뒤뚱거리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어 버리며, 사유의 - **우리 사유**의, **우리** 시대와 **우리** 지역이 갖는 사유의 - 모든 친근성을 뒤흔들어버린 그 웃음 안이다. 이 텍스트는 다음과 같이 씌어있는 "중국의 어떤 백과사전"을 인용한다. "동물들은 다음처럼 분류된다 : a) 황제에게 속하는 동물들 b) 방부 처리된 동물들 c) 길들여진 동물들 d) 젖먹이 돼지들 e) 인어들 f) 전설상의 동물들 g) 주인 없는 개들 h) 이 분류에 속하는 동물들 i)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동물들 j) 셀 수 없는 동물들 k) 낙타털로 된 매우 세밀한 붓으로 그려진 동물들 l) **기타 등등** m) 방금 손잡이 달린 항아리를 깨뜨린 동물들 n) 멀리서 보아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들." 이 분류법을 바라보는 우리의 놀라움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감지하는 것,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사유의 이국적 매력으로서 제시되는 것, 그것은 **우리 사유의 한계**이다 : **그것**의 벌거벗은 사유 불가능성." 따라서 <<말과 사물>> 혹은 '사물의 질서'는 하나의 **문화**, 다시 말해 일정한 시기들에 있어서의 '우리 문화'와 에피스테메들 및 그 에피스테메가 사물을 배치하는 질서를 다루는 책이다. 푸코에게 있어 그것은 지리적으로 유럽 지역의, 시간적으로 르네상스에서 고전주의,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시기의 문화, 즉 '우리의 문화'이다.

모든 문화는 **사물**을 보는 혹은 보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을 갖고 있다. 어떤 사물을 보거나 보지 않기 위하여 문화는 **말**을 필요로 한다. 말과 사물. 말과 사물을 잇기 위해 우리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질서**를 필요로 한다. 질서는 문화적 **약호**(codes), 즉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규정지어진 약호** 안에서 기능한다. 말과 사물 사이의 모든 과거·현재·미래의 현실적·잠재적·가능적 관계들이란 결국 각각의 문화들을 자신의 부분집합으로 갖는 하나의 전체집합이다. 푸코에 따르면, 말과 사물 사이에는 "벌거벗은 경험"(l'expérience nue)을 위한 하나의 영역이 있다[2] : "이렇게 모든 문화 안에는 우리가 질서를 부여하는 약호들(les codes

---

1) 푸코가 인용한 보르헤스의 저작은 다음이다 : 'Le langage analytique de John Wilkins'(in Jorge Luis Borges, *Enquêtes* suivi de *Entretiens*, 'Folio essais', trad. Georges Charbonnier, Gallimard, 1967, pp. 138-143). 이 작은 단편에서 보르헤스는 '<<仁知天市??>>(*Le marché céleste des connaissances bénévoles*)라는 제목의 어떤 중국 백과사전"(141)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이 표현에서 우리는 적어도 <<말과 사물>>의 시기까지는 푸코가 여전히 자신의 이전

ordinateurs)이라 부를 수 있을 어떤 것의 사용과 질서에 대한 반성(les réflexions sur l'ordre) 사이에 존재하는 벌거벗은 경험이 있다. / 이 연구에서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이다. 문제는 16세기 이래로 우리의 것과 같은 문화의 중심에서 그 경험이 무엇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3]

이러한 분석은 당연히, 전통적인 과학사 혹은 관념사보다는, "그것으로 인해 인식과 이론이 가능할 수 있었던 무엇"을 찾으려는 작업을 수행한다.[4] 이러한 작업은 **담론의 공간**, **역사적 아 프리오리**, 한마디로, 주어진 일정 공간 내에서 주어진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l'*épistémè*)를 찾는 작업이다 : "따라서 그것은 그로 인해 오늘 우리의 과학이 마침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을 어떤 객관성을 향한 진보로서 묘사되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식론적 장**(le champ épistémologique), **에피스테메**이다. 이곳에서 합리적 가치 혹은 객관적 형식들에 근거하는 모든 기준의 외부를 지향하는 인식은 자신의 실증성을 파괴하며, 그럼으로써 점증하는 완전성의 역사가 아니라 차라리 **인식 가능성의 조건**이 갖는 하나의 역사를 드러낸다.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드러내야만 것은, 지식의 공간 안에서, 경험적 인식의 다양한 형식들을 탄생케 한 **배치들**(les configurations)이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역사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고고학**(une *archéologie*)이다."[5]

문학 시기의 주된 언급 대상들이었던 바타이유와 블랑쇼(그리고 심지어는 니체)의 영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험은 바타이유의 **한계-사유**(*une expérience-limite*) 및 **위반**(*la transgression*), 혹은 그를 통해 행위의 주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블랑쇼의 **바깥의 사유**(*la pensée du dehors*)를 가능케 하는 그러한 경험이다. **현상학적** 경험이 사실상 "어떻게 바로 나 자신인 이 주체가 자신의 선험적 기능들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의미를 확립하는 존재인가를 다시금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일상생활의 의미를 다시금 포착하려고 하는" 반면, **니체, 바타이유, 블랑쇼**에게 있어서의 경험은 "주체를 스스로로부터 떼어내는, 주체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도록, 혹은 자신을 무화·소멸시켜 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DEQ II, 862). 푸코는 이후 이 위반 혹은 바깥의 경험을 **문제화**의 문제틀에 포섭시켜 **탈주체화의 기획**(*l'entreprise de dé-subjectivation*)이라 부른다(같은 곳).

3) MC, 12-13. 인용자 강조. **중국**에 관련된 다음의 매우 흥미로운 언급을 보라 : "하지만 보르헤스의 텍스트는 또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유치 못하게 하는 분류 방식의 이러한 뒤틂, 일관된 공간을 갖지 않는 이 표에 대해 보르헤스는 그 신화적 조국으로서 바로 그 이름만이 **서양에게** 하나의 거대한 유토피아의 저장소를 구성시키는 하나의 특정한 지역을 대응시킨다. **중국**이야말로, **우리의** 꿈속에서, **공간**의 특권적인 바로 그 **장소**가 아니던가? [...]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반대편 극점에는, 전적으로 연장(延長, *l'étendue*)의 질서화에 바쳐졌으면서도, **우리**가 이름붙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에서도 존재의 증식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문화가 있으리라."(MC, 10-11. 인용자 강조). 이 문자 안에서 푸코는 말하자면 자신의 문화인 서양 문화에 대비되는 **중국 문화의 대상화**(*objectivation de la culture chinoise*) 작업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자신에 대한 반성 작용, 즉 **주체화** 작용(*subjectivation*)이 가능한 것은 오직 이러한 **대상화** 작용을 통해서이다. **타자**(l'*Autre*)는 **동일자**(le *Même*)의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인식론적·에피스테메적 **조건**이다.

4) MC, 13.

5) 같은 곳. '에피스테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용자 강조.

고고학은 주어진 한 시대에 있어서의 인식론적 장, 영역을 정확히 위치지음을 목표로 삼는 연구이다.[6] 더욱이, "**주어진 한 문화의, 한 순간에는**, 모든 지식의 가능 조건을 규정하는 **오직 하나의 에피스테메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의 이론 안에 스스로를 드러낼 수도 혹은 하나의 실천 안에 소리 없이 투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7]

---

6) 이곳에서 푸코에 있어서의 고고학이 단순히 구조주의 혹은 니체적 연원만이 아닌 칸트적 연원을 갖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와 연관된 스타이너(Steiner)의 비판에 답하면서 푸코는 다음처럼 말하고 있다 : "스타이너씨는 칸트가 사유의 특정한 형식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그 무엇인가의 역사를 지칭하기 위해 이 단어[고고학]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DEQ I, '괴물과도 같은 비판 Les monstruosités de la critique'(1971), 1089). <<말과 글>>의 편집자에 따르면(같은 곳), 푸코가 언급하고 있는 칸트의 문장은 다음이다 : "철학의 철학적 역사는 그 자체로 가능한데, 이는 역사적 혹은 경험적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즉 **아 프리오리한** 의미에서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가 이성의 사실들을 확립하는 것은 그것이 빌려오는 역사적 이야기들이 아니라, 철학적 고고학으로서의 인간 이성의 본성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sie zieht sie aus des Natur der menschlichen Vernunft als philosophische Archäologie*)"(in <<형이상학 서설 *Fortschritte der Metaphysik*>>, *G.S.*, Berlin, Walter de Gruyter, t. XX, 1942, 341). 한편 피미아니의 지적처럼, 푸코가 칸트의 <<인간학>>(L'*Anthropologie*)에 부치는 서문을 작성하던 시기가 여전히 그가 "인간 과학 출현 조건의 분석 및 담론적 형성의 고고학"을 수행하던 초기의 국면에 속하는 시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M. Fimiani, *Foucault et Kant*, L'Harmattan, 1997/1998, 97).

7) MC, 179. 인용자 강조. 푸코의 에피스테메와 쿤의 **패러다임**(*paradigme*) 사이의 유사성은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두 개념은 역시 미묘한 차이점도 갖고 있다. 우선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1962)를 언급했어야만 했다는 스타이너의 비판에 대해, 푸코는 다음처럼 대답한다 : "1963-1964년 겨울, 내 생각에는 출간 후 일 년 정도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쿤의 책[<<과학혁명의 구조>>]을 읽었을 때, 나는 <<말과 사물>>을 막 끝마친 후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인용한 것은 쿤이 아니라, 그것[<<말과 사물>>]의 사고를 도야시키고 영향을 주었던 과학사가 G. 캉길렘을 인용했습니다."(DEQ I, 'Foucault répond'(1971), 1107-1108. Cf. *La structure des révolutions scientifiques*, trad. L. Meyer, Flammarion, 1962/1972). 메르키오르는 자신의 <<푸코>>(*Foucault*)에서 에피스템메와 패러다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다 : ① 우선, **차이점**을 보자. 물리학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패러다임과는 달리, 에피스테메는 생물학·경제학 및 언어학을 그 대상으로 다룬다. 한 시대의 규칙들의 총체로서의 패러다임은 동시대의 모든 과학자들에게 의식적인 형태로 알려져 있으나, 에피스테메는 무의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에피스테메에서, 규칙들은 모든 영역에 걸쳐 예외 없이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으나, 패러다임은 예외를 이상 현상(l'anomalie)으로서 용인한다. ② 다음으로 **유사점**들이 있다. "경쟁하는" 각각의 에피스테메들은 서로에 대해 "불가 공약적"(不可公約的, incompatibles)이며, 이는 "경쟁하는" 각각의 패러다임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에피스테메에서 다른 에피스테메로의, 혹은 한 패러다임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따라서, 합리적·점진적 과정이 아닌, 종교적 개종에나 비유할 수 있을 (비합리적인) 혁명적 비약을 보여준다. 이전 시대의 모든 규칙, 가치 체계는 새로운 인식론적 배치 혹은 패러다임 안에서 완전히 역전되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J.G. Merquior, *Foucault*, Harper

바로 이곳에서 푸코는 자신의 **근대 개념에 대한 정의 및 시기구분**을 행하는데, 1966년의 <<말과 사물>>에 등장하는 이 규정들은 푸코의 마지막 날까지 큰 수정 없이 **기본적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 "그런데 이러한 고고학적 탐구는 서양 문화의 에피스테메 안에서 두 개의 단절을 보여 준다 : 고전주의 시대를 여는 **17세기 중반 경**의 단절, 그리고 우리 근대성의 문턱을 이루는 **19세기 초**의 단절."[8]

푸코에 따르면, 고전주의와 근대 사이의 에피스테메적 분할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의 약 50년간** 갑자기 발생했다.[9] 한편 이 우리의 **근대**를 가능케 한 이 인식론적인 단절은 시간으로 **1775-1825년의 사이**에 존재하며,[10] 이 시기 안에서도 1795-1800년을 기점으로 하는 두 개의 연속적인 작은 시기들로 구분할 수 있다(두 개의 작은 시기는 각기 1775-1795년 및 1795-1825년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로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11] 이 시기는 **'우리의' 근대 혹은 근대성의 연대기적인 영도**(*le degré zéro* chronologique)를 구성한다.[12]

그러나 이 시기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인식론적 장을 송두리 채 뒤흔들고 변화시킨 하나의 변화, 불연속, 단절이다. 다시 말해, **우리 근대성의 문턱이 건너뛰어졌던**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16세기 이후 유럽의 거대한 인식론적 단절은 다만 두 차례만 일어났을 뿐이다. 첫 번째는 고전주의를 형성시킨 17세기 중반의 단절이며, 두 번째는 우리의 근대성을 확

---

and Collins Publishers Ltd., 1985, Chapitre III. 'L'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여기에 덧붙여, 우리는 쿤이 자신에게 가해졌던 '역사상대주의'라는 비판에 대하여 이후 (특히 책의 유명한 1972년의 <후기>를 통해) 일정한 '객관성'을 지향하려 했던 반면, 푸코에게는 그러한 지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MC, 13. 인용자 강조.

9) Cf. G. Gutting, *Op. cit.*, 175.

10) 물론 이러한 푸코의 "자의적" 혹은 "주관적인" 시대구분에 대한 많은 반대와 이의제기가 존재한다. 더욱이 <<말과 사물>>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오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J.H. 헥스터가 지적한 것처럼, "구성적 역사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탁월한 주장들은 거의 항상 특정 주제들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 의해 반박되어왔다."(J.H. Hexter, *On historian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pp. 5-6). 푸코의 것과 같은 이런 종류의 대담한 주장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거팅의 지적처럼, 그것이 "엄밀한 일반화를 능가하는, 보다 더 풍부한 결과를 낳는 일련의 제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Op. cit.*, 179). 이에 대해서는 거팅의 **전문적**(*spécifique*), **구성적**(*constructive*), **비판적**(*critique*), **사변적**(*spéculative*) 역사 사이의 구분을 보라(175-179). 그러나 이러한 나의 논변이 푸코가 저지른 역사적 사료상의 오류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11) MC, 260.

12) 물론 **지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푸코의 분석은 **유럽** 지역, 보다 정확히는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대표되는 광의의 **서유럽**에만 엄격히 배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립했던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단절이다.[13] 이제 우리는 각각의 시대에 대해 그것의 에피스테메를 지적해 볼 수 있다 : 중세 말부터 17세기 중반에 이르는 르네상스의 에피스테메는 **유사성**(la *ressemblance*)이다.[14] 17세기 중반으로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고전주의 시대의 에피스테메는 **표상**(la *représentation*)이다.[15] 19세기 이래 아직도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근대의 에피스테메는 **역사**(l'*histoire*) 혹은 경험적-선험적 이중체로서의 **인간**(l'*homme*)이다.[16]

이를 위해 푸코가 각 시대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 생명 및 언어의 세 영역이다. 푸코는 비록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오늘에 이르는 유럽적 **이성**의 거의 끊이지 않는 운동이 존재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더라도 두 번의 인식론적 단절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 "고고학적 수준에서, 우리는 18-19세기의 전환기에 실증성의 체계가 엄청난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본다. 이는, 이성이 진보를 이룩해서가 아니라, 사물을 배치하여 지식에 제공하는 사물과 질서의 존재 양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17] 이제 이 18-19세기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전체적인 변화를 각 부분별로 간략히 살펴보자.[18]

- **노동**의 영역에서, 부의 분석은 **정치 경제학**으로 변화했다 : 리카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조세와 정치 경제학의 원리>>(*Des principes de l'économie politique et de l'impôt*, 1817).[19]

- **언어**의 영역에서, 문법은 **문헌학**으로 변화했다 : 보프(Franz Bopp, 1791-1867)의 <<산스크리트어의 체계, *Système de conjugaison du sanskrit*, 1816>> 및 <<비교 문법 *Grammaire comparée*, 1833>>.[20]

- **생명**의 영역에서, 자연사 혹은 박물학(histoire naturelle)은 **생물학**으로 변화했다 : 퀴비에(Gustave Cuvier, 1769-1832)의 <<비교 해부학 강의, *Leçon d'anatomie comparée*, 1801-1805>>.[21]

우선, 이 리스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몇 전문 분야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13) MC, 13.
14) MC, 32.
15) MC, Chapitre III. 'Représenter'. 특히 72-81쪽을 보라.
16) MC, Chapitre IX. 'L'homme et ses doubles' et X. 'Les sciences humaines'. 특히 329, 333쪽을 보라.
17) MC, 13-14. 인용자 강조.
18) <<말과 사물>>에서 푸코는 이 사건의 다양한, "무한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들을 열거한다 : "수많은 실증 과학들의 구성, 문학의 출현, 철학의 자신의 생성(devenir)으로의 되접힘, 경험성의 존재 양식이자 지식으로서의 역사의 출현"(MC, 233).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우리 근대성의 존재 자체**에 관련되는 거의 무한한 탐구라는 이름 아래 평가되고 측정될 수밖에 없다"(같은 곳. 인용자 강조).
19) MC, Chapitre VIII, 2. Ricardo.
20) MC, Chapitre VIII, 4. Bopp.
21) MC, Chapitre VIII, 3. Cuvier.

- 우선, (근대) **문학**의 탄생이 있다 : 사드(de Sade, 1740-1814), 횔덜린(Hölderlin, 1770-1843) 등.[22]

- 다음으로 **의학**의 영역에, 죽음을 통한 개인화에 따르는 **임상의학**의 탄생 : 비샤(M.F.X. Bichat, 1771-1802)의 <<일반 해부학, *Anatomie générale*, 1801), <<병리 해부학, *Anatomie pathologique*, 1825).[23]

- 심리학, 정신의학과 같은 **"심리" 과학** 및 그 실천의 영역에서 : 피넬(P. Pinel, 1745-1826)과 튜크(W. Tuke, 1732-1822)의 **광인들의 해방**(1793)이 있다.[24]

- **철학**의 영역에서, 순수하게 근대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험적-선험적 이중체로서의 **인간** 및 인간학의 탄생이 있다 : 칸트(I. Kant, 1724-1804)의 3 비판서(1781/1788/1790).

*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추가할 수 있다.

- 우선, **경제**의 영역에서, 적어도 17세기 이래의, 보다 정확하게는 1780년 이래의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 있다.

- 다음으로, **정치**적 사건의 영역으로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있다.

- 마지막으로, **정치적 테크놀로지**의 영역에서, 벤담(J. Bentham, 1748-1832)의 <<판옵티즘>>(*Panoptique*, 1791)에 부치는 <서문>(Introduction)이 있다.[25]

[*]

요약하면, 19세기로의 전환기에, 이전 고전주의의 "모든 가능한 질서의 일반 조건"[26]이었던 표상의 체계가 붕괴되고, **역사** 혹은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이는 "사물들이 오직 자신들의 생성에 대해 이해가능성의 원리만을 요청할 뿐 **표상**의 공간을 포기하고 다만 그 자신들의 위로 똬리를 튼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서양 지식의 장 안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27] 그러나 동시에, "이로부터 인간에 대한 - 반은 실증

---

22) MC, Chapitre IX, 1. 언어의 회귀. 특히 317쪽, 10장 5절 '정신분석, 민속학', 특히 394쪽을 보라.
23) <<임상의학의 탄생>>
24)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의 역사>>.
25) 영역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이곳에서는 위와 같은 영역의 제시에 그친다. 1970년대 후반, 푸코는 이러한 현상 및 사건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여 **계몽**이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사상적 의미에 국한되는 **좁은** 의미의 계몽에 대비되는 **넓은** 의미의 계몽이다.
26) MC, 14.

적이고, 반은 철학적인 - 일반적 반성으로 간주되는 '인간학'의 모든 안일함, 모든 새로운 휴머니즘의 환상들"이 탄생한다.[28]

푸코에 따르면, 인간은 19세기 전환기에 새로이 탄생한 '최근의' 존재이다 : "**19세기 이전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힘, 노동의 풍요, 혹은 언어의 역사적 두께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은 **지금부터 채 200년도 되지 않는 시기에** 지식의 데미우르고스가 자신의 손으로 빚어낸 극히 최근의 피조물이다."[29] 인간과 그 분신들은 생명, 노동, 언어는 근대의 인식론적 배치, 에피스테메 **내에서만** 존재한다.[30] 따라서 푸코에게, **근대적 인간**이란 **동어반복**(*tautologie*)이다. 인간은 오직 근대적 지식의 배치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식론적 수준에서, 인간이란 순수하게 근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말과 사물>> 이후의 푸코의 저술 안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그 단어의 **에피스테메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근대의 또 다른 에피스테메이며, 푸코의 인간은 **정의상** 근대인이다.

인간은 근대 학문 내에 수많은 자신의 **분신들**을 갖고 있다 : 휴머니즘,[31] 인간 과학(les Sciences Humaines), 인간학(l'Anthropologie), 인간학주의(l'Anthropologisme) 등.[32] 이들은 모두 근대에 탄생되고 성립된 학문들이다. 푸코는 이들을 "인간학과 휴머니즘의 쌍둥이 같은 형상들"이라 부른다.[33] 인간은 근대와 **함께** 탄생했으며, 그 역 또한 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모든 학문과 과학들, 즉 **인간 과학들**(les *sciences humaines*)[34]은 바로 근대적 현상의 일부를 이루다 : "인식의 실체가 아닌, **근대 세계에 고유한** 문화적 표현이자 사실로서의 심리학."[35]

---

27) MC, 14-15. 인용자 강조.
28) 같은 곳. 인용자 강조.
29) MC, 319. 인용자 강조.
30) 이로부터, 인간의 '임박한' 소멸 가능성이 나온다 : "그러나 인간이 그저 최근의 발명품이며, 미처 두 세기도 안 된 형상이며, **그것이 새로운 형식을 발견하는 즉시** 사라지게 될, 우리 지식 내의 하나의 단순한 주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깊은 안식과 위안을 얻는다."(같은 곳. 인용자 강조).
31) 본서의 마르크스 관련 장을 보라.
32) MC, 359. 이 칸트의 철학적 **인간학**은 오늘날의 다양한 민속 및 문화를 다루는 과학의 한 분과로서의 **인류학**이 아니다.
33) AS, 22. 이런 의미에서 휴머니즘은 인간학의 인식론적-도덕적 이중체이다.
34) 근대의 일본인들은 이를 **인문과학**(人文科學)이라 옮겼으나 우리는 인간, 인간학, 인간과학의 연속성, 즉 그들의 **동근원성**(同根源性)·**동질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와 같은 역어를 사용한다.
35) HF, 471. 인용자 강조.